반려동물 소변 흔적 제거에 도움 되는 일상용품

반려동물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 하지만 종종 집안에 오물을 남겨 악취가 나거나 얼룩이 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이 실내에 배변을 하는 경우 얼룩이나 냄새를 제거제로 속히 치워야 한다.

반려동물의 소변은 배변 즉시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닦아낸다. 그 후 만약 바닥이 카펫이라면 젖은 천으로 닦아내면 이미 카펫 깊숙이 침투한 액체를 추가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 젖은 천을 사용하는 이유는 섬유가 수분으로 인해 느슨해져서 소변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변을 닦았다면 이제 냄새를 제거한다. 만약 별도의 냄새 제거용 세제가 없다면 일상생활용품을 이용 냄새를 제거한다.

■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소변 냄새를 제거할 때 놀라운 효과를 낸다. 먼저 약간의 물과 주방 세제로 카펫의 얼룩을 닦아낸 후 그곳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두고 한두 시간 후에 물로 씻어낸다.

■ 식초

식초와 물을 같은 비율로 섞어 천이나 걸레를 적신 다음 소변 얼룩을 두드리듯 닦아낸다. 이후 가장자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증류수로 닦고 카펫을 잘 말린다.

■ 세탁 세제

세제는 세탁물뿐만 아니라 카펫과 쿠션을 깨끗이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세제와 물을 섞어 소변 얼룩에 문지르되 거품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한다. 이후 카펫을 물로 꼼꼼히 씻어낸다.

■ 알코올

위에 언급한 용품들이 없다면 보드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드카를 세제처럼 사용한 후 물로 씻어낸다.

■ 카펫 클리너

냄새가 심하거나 얼룩이 큰 경우 소변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냄새를 제거하는 특수 냄새 제거제, 카펫용품 클리너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특수 세제를 사용하면 좋다.

주의할 점은 세제가 카펫을 변색시키는 등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제를 사용하기 전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발라 확인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가을에 흔히 걸리기 쉬운 반려견 질환

다른 동물처럼 개도 가을이면 면역력이 저하한다. 일조량 감소로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지면 면역체계가 약화하기 때문에 개도 이 시기쯤 자주 병을 앓는다. 가을에 걸리기 쉬운 반려견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리슈만편모충증

개의 면역체계가 약화하는 가을은 특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리슈만편모충증은 늦여름 모래파리에게 물려 걸리는데 몇 주 만에 급속도로 병이 확산한다. 진행 속도가 빠른 질환이므로 보호자가 증상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 켄넬코프

켄넬코프는 개의 기관기관지염을 말하며 가을에 가장 흔히 걸리는 반려견 질환이기도 하다. 개들끼리의 접촉이 잦은 반려견 공원이나 켄넬 공동 사용 등이 감염을 가속할 수 있다.

켄넬 코프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며 기침, 재채기는 물론 고열까지 유발할 수 있다. 며칠 만에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한다.

3. 기생충 관련 질환

기생충 감염은 늘 조심해야 하지만 가을에 그 위험도가 높다. 벼룩과 진드기가 죽을 만큼 춥지 않기 때문에 개들끼리 전염될 수 있다.

또한 각종 전염성 질병을 퍼뜨리는 벼룩과 진드기는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

4. 골관절염

골관절염은 노견에 자주 나타나는 질환으로 고통을 달래줄 완치법마저 없다.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뿐이다.

쌀쌀한 가을이 되면 골관절염에 걸린 개들은 통증을 더 많이 느끼므로 편안한 쿠션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산책하러 나갈 때는 개에게 옷을 입힌다.

5. 털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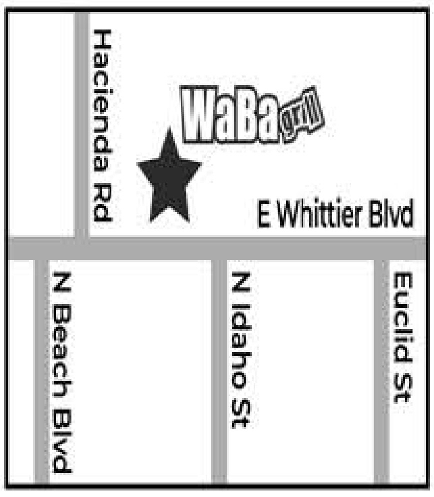
털갈이는 질환은 아니지만 반려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개들은 일 년 내내 털이 빠지지만 환절기,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심하게 털갈이를 한다. 체온을 낮춰줬던 얇고 가벼운 여름털이 빠지고 찬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굵은 털이 난다. 털갈이가 시작된 것 같으면 빗질로 죽은 털을 제거하고 새털이 건강하게 나도록 돕는다. 오래된 털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드기가 번식하여 물집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가을에는 반려견 체온을 따뜻하게 하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를 피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 D, C와 D가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면 면역체계 약화를 피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